
Global Report

미국의 환경정책 4개년 계획

1. 개요
2. Donald Trump 대통령의 환경정책
3. 민주당 대권후보 Joe Biden의 환경정책
4. 결론

1. 개요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재임 4년 동안 환경 분야의 귀중한 정책들을 많이 망치게 했다. Trump 대통령이 망친 환경정책의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2. Donald Trump 대통령의 환경정책

- ①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탈퇴하였다. (그 탈퇴 결정은 2021년 7월 6일에 공식화할 예정이다)
- ② 자동차 연비 향상 정책을 완화 시키고, 발전소 환경오염 배출 기준도 악화시켰다.
- ③ 9백만 에이커(108억 평)에 이르는 뇌조의 일종으로 보호조류인 sage grouse 서식지를 해제하여 석유와 가스채굴 기업에 개방하였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같은 정책 추진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Trump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사안들에 대해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Harvard 대학교 법대의 환경 및 에너지법 프로그램과 Columbia대학교에서 기후변화법을 연구하는 Sabin Center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Trump 대통령이 100개가 넘는 행정규칙, 대통령 특별명령, 규제 완화법령에 서명하였고, 그중에서 66개는 실제로 실행에 들어갔다.

3. 민주당 대권후보 Joe Biden의 환경정책-Trump 대통령이 망친 환경정책의 원상복구

만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로 사실상 확정된 Joe Biden의 11월 대선에서 현직인 Trump 대통령을 물리친다면, 그가 집권할 4년 동안 Trump 시대에 행한 일 중에 원상복구 시킬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Biden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당일 발효할 가장 크고 화려한 선언은 미국이 파리협정에 복귀하겠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Harvard 대 법대의 환경 및 에너지법 프로그램 이사인 Jody Freeman이 말한다.

“우리는 포기해 버린 환경정책의 고삐를 되잡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해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의 한 가지는 미국의 과거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훨씬 더 야심 찬 감축 이행안을 들이미는 것이라고 Harvard 대 법대의 환경 및 에너지법 프로그램 상임이사 Josep Goffman이 제안한다.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안의 당초 목표치는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26 % ~ 28 % 낮추도록 하는 것이었다. 만일 Biden이 당선되어서 더 많이 감축하기를 동의한다면 파리조약에 서명한 196개 국가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엔 Biden 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그때부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미국 내 작업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미국 의회는 대체로 별로 유능한 편이 아니지만 요즘 나오는 환경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Trump 행정부에서는 환경 관련 법령들이 실제 법률로 확고하게 제정되어 공포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특별명령(Executive order)이라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정책 시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Biden은 취임 첫날에 Trump 대통령이 단순한 대통령 특별명령 시행으로 그간에 역행시켜 놓은 그 명령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어떤 형태의 규제 정책 변경을 시행하더라도 공청회 의견과 검토와 더불어 법적인 이의제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리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차기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 시행한 정책이 1년 내지 3년 안에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채택하게 될 정책들은 과거의 것들을 단순히 시정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야 한다.

4. 결론

Biden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Green New Deal이 시행될 것이라는 가설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Biden은 1970년 제정된 대기 청정 법(Clean Air Act) 같은 환경법령들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좀 더 엄격하게 녹색 정책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Freeman 이사다.

지난 6월 30일 미 하원 select 위원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2050년까지 미국 내 실질적 탄소 배출 제로 라는 야심에 찬 계획을 선보였는데, 이것을 Biden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하원 장악 유지와 상원 다수 확보 여부에 법안통과 가능성이 걸려 있을 거 같다. Freeman이 말하기를 Biden은 (통과 가능성이 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회복 법안에 기후정책을 연계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Biden은 그보다는 오히려 설거지 맨(Mr. Fix-It)으로 그 자신을 부각 시킨다. 과거 4년간 어질러졌다고 보는 것들을 그는 바로 잡을 것이며 그다음에야 그것을 넘어서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정책이야말로 그가 뒤치닥거리 해야 할 많은 정책 중 가장 큰 몫이 될 것이다.

<원문제목> The four-year plan for America

<원문출처> 07/20/2020 TIME